

경기도,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2차 웨비나 개최... 해외사례 전문가 강연 기문가야문화선양회 대표이사 기고

경기도, 지난 27일 1차 웨비나에 이어 오는 3일 2차 웨비나 생방송 개최

경기도가 오는 3일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의 2차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데이터 주권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한 1차 웨비나를 개최한 바 있다.

2차 웨비나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퀸스랜드, 유럽연합 등 해외 지자체 뿐 아니라 DIGI.ME, 유니세프와 같은 해외 민간기업 및 국제기구의 정책 사례를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제니퍼 어반(Jennifer Urban)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청 위원장의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를 시작으로 ▲마틴 매닐(Martin Manil) 에스도니아 달린시 CIO의 '데이터 주도 그린 글로벌 시트를 향하여' ▲세인 마셜(Shane Marshall) 호주 퀸스랜드 주정부 소비자·디지털 그룹 국장

의 '호주와 퀸스랜드의 데이터 주권' ▲말테 바이어-카첸베르거(Malte Beyer-Katzenberger) 유럽집행위원회 데이터혁신정책관의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 현황과 마이데이터 활용 정책' ▲안티 포이콜라(Antti Poikola) 마이데이터글로벌 의장의 '헬싱키의 마이데이터 사례' ▲앨런 미첼(Alan Mitchell) Mydex 이사의 '개인 데이터 주권 및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 영국 공공서비스' ▲줄리안 레인저(Julian Ranger) DIGI.ME 창립자의 '개인 데이터 주권과 활용 사례' ▲엠마 데이(Emma Day) 유니세프 아동보호선임컨설턴트의 '새로운 아동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향하여' 등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웨비나는 3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웨비나는 오는 8일 개최되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의 일환으로 데이터 주권 정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보다 심도 깊게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데이터 주권은 도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인 만큼 널리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웨비나 및 본 행사인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본 행사인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은 9월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주제로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과 사용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남원의 유곡리 두락리 고분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올해 초에 서류제출이 완료되었고, 8월 11일(수)부터 예비심사를 다녀갔다. 이제 2022년 7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자랑스런 남원의 유산으로 등재하고 관리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고대 일본식민지 명칭 "기문가야"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을 찬물을 끼얹고 있어 기문가야문화선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입장을 정리해 본다.

가장 첨예한 문제는 기문국의 위치가 남원인가이다.

기문은 "삼국사기", "양직공도", "한원", "일본서기" 등 동아시아 삼국의 사서에 모두 기록된 국가였고 국내 유네스코 등재 전문위원들이 남원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존재였다. 그래서 백제도, 신라도, 왜도 교류하고 싶은 국가였다. 이는 기록하는 자들의 시각으로 본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巴文" "巴汶" "奇物"이라는 문자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문화재 전문가들이 한자 자각시첩 5급 수준만 돼도 아는 글자를 조작할 전문위원이 어디 있겠는가?

한자를 "巴汶"으로 조작했으니 식민사학자라고 실명을 거론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0세기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역사가와 역사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설명했다. 역사해석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변한다. 일반시민은 역사 전문가의 지식을 소비할 뿐이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외면하면 된다.

다음으로 우리 남원 시민들이 기문가야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어떤 절차가 필요인지 알아보자.

남원시청을 찾아가 시위하고, 확성기 불통을 높여 항의하는 것은 자유다. 시장은 집회 자체를 막을 수가 없겠다

기고/김희문

"주민자치 다함께 맞이하자" 광명시, 광명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아리랑' 개최



광명시는 9월 1일 광명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주민자치를 맞이하다)'을 성공리에 마치고 자치분권 확립과 주민자치 활성화 의지를 다지한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광명시·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현실시점에서 자치분권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포럼은 8월 23일 사전행사(전문가 포럼-주민자치 노래하다)와 9월 1일 본행사(토크 콘서트-주민자치 느껴서 알다)로 나눠 진행했다.

사전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국회의원, 제창록 광명시의원, 시민, 전문가 등이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보는 주민자치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9월 1일 본행사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주민'에 대해 시민과 함께, '자치'에 대해 이동진 도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광명극장에서 진행된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모집한 시민 100여명이 ZOOM으로 참여했으며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했다.

또한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박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러시아 소수민족 예멘키족이 실제 사용하는 말 '아리랑'의 뜻인 '맞이하다'에서 의미를 가져와 우리 모두가 다함께 주민자치를 맞이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주민자치 아리랑이라고 지었

최정부/기자

경남·울산, 230억 규모 '스마트그린뉴딜 창업벤처펀드' 결성

경상남도도와 울산광역시 공동으로 총 230억 원 규모의 '스마트그린뉴딜 창업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지난 3월 한국모태펀드 1차 정치출자사업에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주)가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한국모태펀드가 88억 원, 이준호(사재) 덕산하이메탈 회장 30억 원, 울산시 30억 원, 경남도 20억 원을 비롯해 ㈜디에스이, ㈜동성케미칼,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이 출자에 참여한다.

협약 주체들은 그린뉴딜을 선도할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게 된다.

특히 협약서에는 "경남과 울산 지역 소재 기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창업투자 환경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이 투자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결성된 이번 펀드가 부울경 지역의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 이준호 덕산하이메탈회장, 황석웅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장, 이상봉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장, 최영찬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주) 대표가 참석했다.

최광용/기자



광주은행, 전남도에 인재육성 장학기금 기탁

전남 인재 평생 교육 진흥원에 5천만원 후원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일 광주은행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중욱 광주은행장,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억 원에 이어 올해도 추가로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 12년간 3억 8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및 거대기업체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기금을 기탁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준비가 어려운 대학 졸업생 지원을 위해 지난해 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초로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역 인재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찾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중욱 행장은 "전남·광주 대표인



행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인재 양성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탁금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장학기금 및 후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만/기자

전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야간 상담프로그램 운영

오는 13일까지 2주간 청년층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해

전북도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야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신체·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야간상담 프로그램은 기존에 운영하던 주간 상담프로그램과 달리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전북도민 중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 청년층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전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격주 1회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회기별로 ▲자기 긍정성 이해하기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처 방법 습득 ▲긍정적 자원과 감정 탐색 및 미래 설계 ▲긍정 정서



향상시키기 목표로 구성되며, 청년층의 자아 긍정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한다.

김승일/기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765만 경기남부 도민 위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1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 제안 등과 함께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군 소음법

의 보상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한다. 법적 보상기준인 80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동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아 제출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 보상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25년, 김포공항은 2030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남부에 신공항 건설 시 비용편익(B/C)분석 결과가 2.36과 2.04 등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상당한 부가가치효과, 일자리 창출, 접근성 향상 등 효과를 고려해보면 765만 경기남부 도민을 위한 통합국제공항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기 체육정책에 대한 질

문에서 황대호 의원은 “스포츠는 수단이나 아니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누리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스포츠복지도시로 도약을 위한 지방체육회의 자생적 성장 지원을 위해 경기도체육회 예산을 복원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리하는 경기도체육회관을 경기도 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도내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이재정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하여 이 지사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올해 신규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형 스포츠뉴딜’의 시즌2를 제안했는데, 65개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방역물품지원과 도내 체육종사자들을 위한 단기일자리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소개했다.

이날 이재정 도지사를 대신하여 답변자로 나선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황대호 의원이 말씀하신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상황은 도에서 확인하여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해주시는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을 도지사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극심한 군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영상을 소개하며 “도 교육청의 소음피해 용역 결과 75웨클 이상인 학교가 수원에만 70곳에 달한다”며, “75웨클 이상이면 난청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 학습력 저하 등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기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황대호 의원께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도교육청에서도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군 공항이 이전되어야 소음피해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혜영기자

고령군의회,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고령군의회는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일 군정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점검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 대상지는 ▲월성일반산

업단지 조성, ▲고아리 벽화 고분 모형관 건립, ▲생생팜 체험단지 조성 사업 등 3개소이며,

의원들은 사업에 대한 내용과 진행현황,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봤다.

성원환 의장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에 나와 보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된다”며 “고령군의 주요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30일 개최한 제271회 임시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김세기기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렴 및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로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전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과 성폭력 등을 포함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주요 내용이다.

1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에 관한 법령 및 실제 사례, 의정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2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하였다.

종로구의회는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한 「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만드는 등 청렴한 의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남다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등급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여봉무 의장은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사회의 리더로 더 높은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에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종로구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상순기자

충남도의회 “정부, 청년청 신설해 청년정책 일원화 해야”



충남도의회는 1일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고 청년문제를 전담하여 청년정책을 일원화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2009년 8.0%로 다섯 번째로 낮았으나 2019년 8.9%로 스무 번째로 밀려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년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신종바 이러스 사태로 청년들의 고용·소득·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한춘옥 도의원,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 조례 제정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실직 등으로 인한 노숙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노숙인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노숙 예방과 노숙인의 인권보장,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등

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거리 노숙인 1,241명을 포함 전국의 노숙인은 9,470명, 전남은 643명이다. 전남의 노숙인은 주로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의료, 주거안정과 취업 지원 등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지원 외에도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도 지원 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노숙인의 인권보장과 복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직무교육도 분별하였다.

한춘옥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노숙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남은 거리 노숙인은 찾기 어렵고 주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만큼 시설 내 노숙인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에 지원의 조정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빠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고령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도로변 식당·카페 방역수칙 민관합동 점검 실시



고령군은 3개반 14명(공무원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 고령경찰서1,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령군지부2)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8월 31일 19시30분부터 관내 주요도로변 식당·카페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하여 민관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인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서 예방접종을 입증한 사람에 대한 적용 예외사항 및 경상북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였다.

이번 점검은 7월 이후 느슨해진 방역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일제 점검일에 맞춰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및 출입자 관리, 각종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도를 하였다.

김세기기자

함안군, 추석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함안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9월 7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조리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자가 품질검사 실시 여부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며, 특히 추석에 소비가 많은 전·튀김 음식 등을 수거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 점검을 통하여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목포시,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민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등 건축·전기·가스·소방 점검

목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조규일 진주시장,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현장 점검

정수장 현대화사업 선정 국비 558억 확보, 2024년까지 제1·2 정수장 통합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31일 진주시 제1·2 정수장을 방문해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117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는 이원화된 제1·2 정수장 통합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진주시는 환경부에서 시행한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

성 조사에서 2020년 정수장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55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6월 진주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본격

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2022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통해 상수도 통계자료와 수도시설 운영관리자료 등을 분석하여 시설물의 노후도를 진단해 시설개량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수장 소독시설, 침전시설, 여과시설, 기계, 전기, 계측제어 설비 등 개량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정수시설 현대화와 시설 운영 일원화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제1·2 정수장 통합으로 남는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두루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익산시, 도민(장애인)체전 대비 음식점·숙박업소 점검

익산시는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제58회 전라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 음식점 및 숙박업소 위생점검 등을 철저히 준비를 마쳤다.

점검 내용은 숙박업소 객실 침구류 등에 대한 소독과 청결상태,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먹는 물 관리상태, 요금표 게시 여부와 음식점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종업원의 개인위생이다. 특히 행사기간 중 코로나19 방역

점·카페 300여 개소를 집중 지도·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숙박업소 객실 침구류 등에 대한 소독과 청결상태,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먹는 물 관리상태, 요금표 게시 여부와 음식점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종업원의 개인위생이다. 특히 행사기간 중 코로나19 방역



이선수기자

경남도, 추석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9월 6일~17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기간 지정

경상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수산물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함께 시군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6일부터 17일까지 추진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뢰도를 높여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합동 및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10건을 단속하고, 1,09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 특별 점검으로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정처분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경기도, 추석 성수제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단속

제수·선물용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경기도) 및 원산지 검정(농관원) 실시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다소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 5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꽃감, 돌무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

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농정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구별법을 안내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김천시 코로나19 방역업무 방역 일제점검

김천시에서는 지속적인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54일째 4자리수가 이어짐에 따라 방역 취약시설인 음식점, 유흥시설 등을 일제점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에서 전체 시·군의 음식점·카페, 유흥시설, 제과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업무 방역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했다.

점검단 3개조 10명은(공무원, 관련협회)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과 영업제한이 시행되는 22시 전후로 식품접객업소가 밀집된 평화남산, 대곡동, 대신동 지역 중심으로 73개소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내용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밀집도 완화 여부 등이다.

또, 음식점등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의 느슨해진 방역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설 관리자가 지켜야 할 방역준수 사항을 위반 했을 때 고발조치, 과태료 및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협회 관련자들은 하여 회원들이 피해 불가 앞장서서 방역 위반시 행정처분을 홍보하고 있다.

관계자 환경위생과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인척가족들이 외부에서 방문할 것을 대비해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관리자는 출입명부 작성 안내, 이용자는 출입명부 작성 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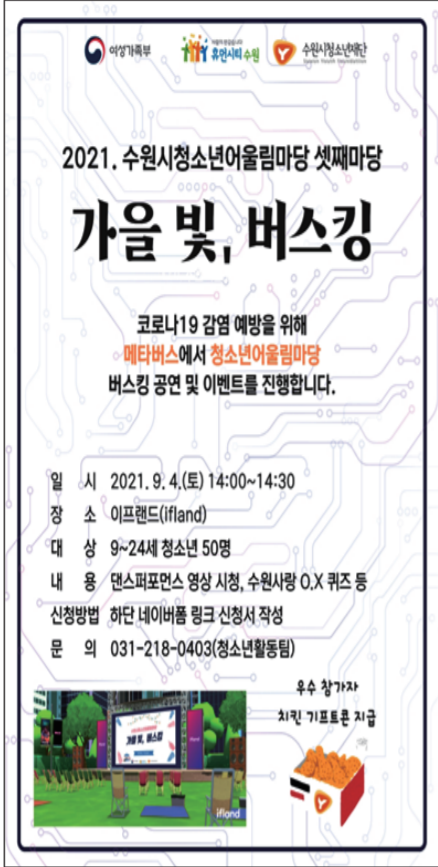
김세기기자



잠깐! 입장 전 소독하고 가실게요

수원시청소년재단, 2021년 수원시청소년 어울림마당 셋째마당 비대면 개최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는 오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2021. 수원시청소년어울림마당 셋째마당 '가을 빛, 버스킹'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여성가족부와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수원시청소년어울림마당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축제 형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가을 빛, 버스킹' 또한 온라인 및 키트배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 관내 대학생 25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문화기획단 플래닛'이 주도하여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진행되는 행사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청소년 동아리들이 준비한 키트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축제에서 운영해온 전시·체험부스를 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사전 모집된 100명을 대상으로 체험키트를 배부한 뒤 청소년동아리들이 준비한 가이드 영상과 매뉴얼을 제공하여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시청소년어울림마당은 9월 셋째마당 행사 진행 후 10월 중 '찾아가는 어울림마당-수원다산중'을 진행하고 '폐막식'을 통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외부활동과 문화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통해 유익한 여가 활동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청소년 및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하남시, 일가기념관 · 도서관 개관 하남시민의 역사문화공간될 것

김상호 시장 '일가정신이 하남시민의 울타리 없는 이상촌 공동체 건설은 물론,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정신적 바탕이 되도록 할 것' 강조

하남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던 일가(一家·고 김용기 장로의 호)의 정신을 현대에 계승할 일가기념관과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30일 옛 가나안 농군학교를 활용해 조성한 미사역사일가공원(미사강변남로 10)에서 일가기념관과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일가기념관과 도서관·어린이집은 부지 6,912㎡, 연면적 1,613㎡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개관식은 김한중(재)일가재단 이사장과 김평일 교장·손봉호 명예이사장·황우여 이사 등 재단 관계자, 김상호 하남시장, 최중윤 국회의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 청소년·시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행사에서 경과보고에 이어 일가기념관·도서관 개관에 공이 큰 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먼저 김한중(재)일가재단 이사장이 일가기념관·도서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김상호 하남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LH 하남사업 본부에는 일가재단에서, 나라에너지 서비스에는 김상호 시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지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김상호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은 일가기념관과 도서관 개관으로 30만 하남시민과 하남의 청소년들에게 자부심과 포부를 가질 수 있는 날

이 됐다"면서 "일가 선생님의 시대정신과 역사정신이 하남시의 현재와 미래에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인일수록 농사를 지어라고 하신 일가 선생님의 정신을 받들어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하남시가 되도록 하겠다"며 "일가정신이 하남시민의 울타리 없는 이상촌 공동체 건설은 물론,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정신적 바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평일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중윤 국회의원 등 관계 인사들도 축사를 통해 일가기념관과 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 이어 기념관 개관 테이프 커팅식과 고 김용기 장로가 육신과 영혼의 잠을 깨우고자 매일 새벽 4시에 찾다는 '개척의 종' 동상 제막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박강호/기자

고양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부상자 치료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식 열어

고양시가 1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부상자 치료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1천만 원의 성금은 탐나종합어시장 화정점에서 기탁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뢰폭발사고 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탐나종합어시장 화정점 강종열 대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강종열 대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환경정화 활동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지뢰폭발사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한 성금 후원에 감사드린다. 갑작스런 재난에도 걱정하고 도와줄 이웃이 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된다"며 "고양시가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영기/기자

성남시, 11일 온라인 아토피 힐링데이 운영



교 학생·원아(2만603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아토피 피부염 질환과 예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강의를 나경임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전문의의 웨비나(Zoom 프로그램)로 생중계한다. '아토피 피부염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관한 영상을 송출해 관련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누에고치 명주실 뿔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오는 9월 10일 오후 5시까지 네이버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3시 30분 '온라인 아토피 힐링데이'를 운영한다.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성남지역 73곳 아토피·천식 안심학

교 학생·원아(2만603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아토피 피부염 질환과 예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강의를 나경임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전문의의 웨비나(Zoom 프로그램)로 생중계한다. '아토피 피부염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관한 영상을 송출해 관련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누에고치 명주실 뿔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성용/기자

신동현 광주시장, 제3회 광주혁신교육포럼 기획위원회 참석

광주시는 지난 31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제3회 광주혁신교육포럼 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신동현 시장과 한정숙 교육장, 임일혁 시의회 의장 등 기획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혁신교육상반기 분과포럼 결과 공유 및 2022년 광주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초안 협의 등을 논의했다.



계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진로교육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 시장은 "지역사회와 교육이 상호 소통을 통해 이해와 협조로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체가 되어 청소년과 지역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혁신교육포럼은 지역교육 정책과제 도출 및 교육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조직된 교육협의체로서 시장·교육장·시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인 기획위원회를 포함, 총 5개(혁신교육, 문체체 교육, 마을교육, 진로미래교육, 생활안전교육) 분과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박강호/기자

(재)포천문화재단,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포·도·당 추진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에 술인들은 위한 공모지원사업 '포천에 도착한 당신의 예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단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인 포도당은 지역예술인의 지속적 활동기반을 다지고 포천시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예술·청년예술·생활문화·문화예술 거점공간에 총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포천시 소재(거주) 전문·청년 예술인 및 단체, 생활문화 동호회, 문화예술 거점공간 운영주체(카페, 갤러

리 등)이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포도당처럼 포천시 전체에 에너지원이 될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와 우리 포천의 문화적 양분 마련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팬데믹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된 '우리가족 여름일기'

여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10일 동안 여주시 100 가족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족 프로그램 '우리가족 여름일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족만의 방학규칙 정하기', '과일화채 만들기', '얼굴나서 게임', '그림일기 쓰기' 등 다양한 미션들로 진행되었다. 한 참가자 가족은 "방학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집에 꼭 박혀있는 딸과 함께 미션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많이 웃고, 가족끼리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성용/기자

경기도, 코로나 블루 극복 산림휴양시설 인프라 확충 박차

경기도, 2021년도 산림휴양시설 사업 추진 확충 박차



최근 코로나 블루(Blue, 우울감) 극복의 대안으로 녹색복지가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총 3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림휴양시설 11개 사업을 추진하며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도민들을 위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산로 정비 등 산림휴양 시설을 확충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도심지 생활권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화성 무봉산자연휴양림, 수원 수목원, 성남 정계산산림욕장, 이천 목재문화체험장, 동두천 치유의 숲, 안양 유아숲체험원, 고양 나눔목공소 등 총 11곳을 신규 조성 중이다.

용인 자연휴양림, 여주 활학산수목원, 안산 대부도산림욕장, 나눔목공소 등 기존 노후 산림휴양시설 21곳을 대상으로 보완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에게 늘 쾌적한 산림휴양환경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숲이나 산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광교산 등 등산로 총 273km 구간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올해 43억 원 예산을 신규 편성

해 등산로 이정표정비, 경기명산27쉼터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 목공체험, 숲체험 등 도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도 주력한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 운영과 별개로 동영상 프로그램 운영, 숲체험 키트 제작배포, 찾아가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대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20명, 유아숲지도사 124명, 목공지도사 29명, 숲해설가 27명 등 총 271명의 산림복지 전문인력이 도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곳곳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향후 도는 산림휴양서비스의 지

속적인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산림휴양시설을 200곳에서 230곳까지 늘리고, 산림휴양분야 일자리도 300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자연휴양림 18곳, 수목원 20곳, 치유의 숲 5곳, 산림욕장 41곳, 유아숲체험원 92곳, 숲속야영장 1곳, 목재문화체험장 2곳, 산림교육센터 3곳,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곳 등 총 200곳의 산림휴양시설이 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앞으로 산림휴양 트렌드에 맞춰 도시 생활권 주변에서 도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잘 가꾼 숲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도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비대면 가족문화공연 "꿈꾸는 상상"



오산시는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틀에 걸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비대면 뮤지컬 공연 '집콕! 방구석 1열 - 꿈꾸는 상상' 뮤지컬 공연을 개최한다고 1일 전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 및 문화생활이 제한된 영유아들을 위해 안전하게 가정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된다.

'꿈꾸는 상상'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모티브로 동물의 특징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12개의 모음곡이 워드 넘치는 스토리로 구성돼 있어 마치 꿈의 음악제 속으로 걸어가 함께 연주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널 도와줄게!"라는 내용으로 어른과 아이가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뮤지컬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둔 350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신청은 9월 1일 13시부터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연 관람 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은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유아의 문화생활이 제한돼 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꿈을 키워 나가며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연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남주/기자

구리시,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사전예약 오픈



구리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사전 예약을 받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철저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박람회장 포장 면적 6㎡당 1명으로 계산하여 시간당 150명의 제한된 인원만 관람하게 할 예정이다. 박람회 예약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박람회 운영사무국 02-6401-9715)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10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17일간 구리 장자호수생태공원에서 개최한다. 장자호수생태공원 3단계 부지에 국내 유명 정원작가들이 참여하는 디자이너 정원 7개소와 실내외 생활정원 30개소, 구리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성한 시민참여정원 25개소, 대학생 정원 7개소 등을 전시하게 된다.

한편, 안승남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시장실에서 직접 사전 예약 시연회를 가지며 사전 예약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정원문화박람회의 목표는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지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 주제가 「정으로 물드는 뜰」인 만큼, 박람회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고, 구리시 전체가 반려식물과 함께 하는 정원 도시가 되기를 꿈꾼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양평군, 어쩌다 꽃중년 행복예감 5070 사업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안승남 시장의 "이번 정원문화박람회의 목표는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지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 주제가 「정으로 물드는 뜰」인 만큼, 박람회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고, 구리시 전체가 반려식물과 함께 하는 정원 도시가 되기를 꿈꾼다."고 전했다.

양평군은 '어쩌다 꽃중년 행복예감 5070 사업'의 신중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인생 설계

를 위한 신중년 life design 과정 운영을 위해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미디어를 생산하기 보다는 유튜브 시청 등 소비에 한정됐던 신중년 세대에게 자신만의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역량 교육으로 스스로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1인 프로듀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이달 9일까지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인생 2모작 인생 설계를 위한 신중년 life design은 10월 5일부터 11월 16까지 매주 화, 목에 진행되며 인생 2모작 시대 퇴직 이후의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 전문성 향상을 강화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으로 9월 30일까지 수강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학습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개강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 인 신중년들을 위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구축 사업으로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과 건강한 지역사회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을/기자

용인 수지신용협동조합, 청소년 예술 장학금 후원금 5백만 원 전달



수지신용협동조합은 지난 8월 31일 용인시청에서 (재)용인문화재단에게 용인지역 청년 예술가 육성 지원을 위한 후원금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용인문화재단 백근기 이사장, 정길배 대표이사과 수지신협 이기찬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예술 장학금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후원금은 용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장학 사업인 '용인청소년예술꿈드림'을 통해 예술가를 꿈꾸는 어린 꿈나무들을 지원하는데 사용 될 예정이다. '용인청소년예술꿈드림'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예술가를 꿈꾸는 고등학생들 중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선발하여 수강료와 재료비, 악기대여비 등 예술 관련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다.

수지신협은 용인문화재단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꾸준한 기부를 통

해 용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수지신협 이기찬 이사장은 "앞으로도 용인지역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문화예술 전문가로써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후원금 전달 소감을 전했다.

조혜영/기자

경북도 국가안전대진단, 전국체전 주경기장부터 안전점검

9월 1일 전국체전! 안전체전! 성공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경상북도는 1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10월 8~14일)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20~25일)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강성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민관합동점검반 12명을 편성해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구미 시민운동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축사사무소 등 민간전문가들과 경북도 소방본부·전국체전기획단·사회재난과 등 관련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개월 간 대내 취약시설 170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진행했다.

올해 경북도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첫 안전점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찾는 참가 선수단의 안전보장과 감염병 차단을 동시에 대비하고자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핵심은 처음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전문장비인 드론을 도입해,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물과 구조물까지 주경기장의 곳곳을 상세하고 정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점검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구조물의 안전성 >전기·가스·소방·승강기 등 각종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시설물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참가선수단과 가족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열 체크기 설치, QR코드기 설치, 손소독제 비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체계도 꼼꼼하게 점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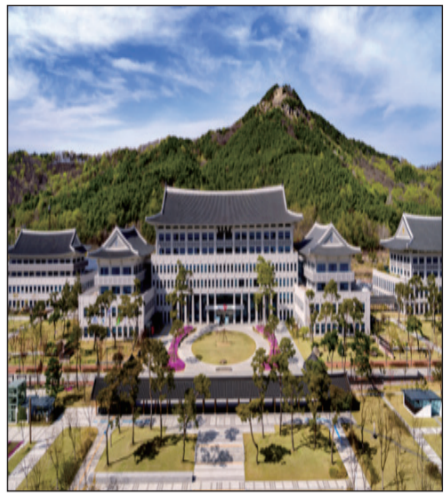
이날 점검결과는 각종 구조물과 설비의 안전실태 및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현장에서 도출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즉시 보강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체전 경기장 107개소에 대해 관리주체별로 자체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특별점검이 필요한 17개소 경기장에 대해서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분야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 안전실태를 살펴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 할 예정이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방만이 최선책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신고와 제언 등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사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세기기자

대구환경공단, 대구여성가족재단과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여성가족재단은 8월 31일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구환경공단 정상용 이사장,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일선 대표 등 공단 및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협약식은 참석자들이 상호 화해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연계·협력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관련 전문서비스 지원 등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식에 이어 대구환경공단은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서서 동참하는 의지로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중인 '일·생활 균형 실천 릴

레이 캠페인'에 대구시 지방공기업 중 첫 번째로 참여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일선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이 지역사회

회의 일·생활 균형 실현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녹색도시 구현에도 앞장서 대구 시민의 행복과 안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대구환경공단 정상용 이사장은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세대가 바뀌어 따라 직장문화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성평등·가족친화경영 등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며, "대구여성가족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증진과 지속적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칠곡군의회, 학대피해아동 심터 운영 벤치마킹 위해 포항시 방문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추진,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심터 운영 노하우 전수

칠곡군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칠곡군 아동보호체계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번 벤치마킹도 용역연구 결과 과제 중 하나로서 제시된 '학대피해심터'를 설치하기에 앞서 시행된 것이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한향숙 칠곡군의원은 "포항시가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아동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며, "우리 칠곡군의회에서도 학대심터 설치, 아동보호팀 신설 등을 빨리 서둘러서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현기자

안동시 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깨끗한 우리집 만들기'사업



안동시 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월31일부터 9월말까지 관내 취약주거단지 18가구를 대상으로 방역·소독 홈케어 서비스 '깨끗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지속적인 주거내·외부 관리가 필요하지만 환경개선 의식이 취약한 세대가 많아 악취, 벌레 발생 등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관내 취약주거단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관리사무소 추천 및 본인 신청 등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현장확인 및 본인 동의 후 선정하고, 전문방역업체와 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방역·소독한다.

박주주 민간위원장은 "열악한 주거환경 방치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의 방역소독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성용 옥동장은 "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로 바이러스 및 질병 예방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며, 방역 소독에 앞장서주시는 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윤리·인권경영 실천 다짐운동 실시

청렴 분위기 확산 및 상호간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청렴문화 확산 및 상호간 존중 배려문화 조성을 위해, 1일 '윤리·인권경영 실천 다짐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 노사협의회 노동자 대표 3명과 사용자 대표 3명은 공단 회의실에서 윤리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 선언문을 낭독하고 상호존중 실천서약서를 작성하며 다짐운동을 시작했으며, 남은 전 직원들은 비 대면으로 상호존중 실천서약에 동참했다.

노·사 대표가 주도하고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이번 다짐운동은 공단 내외에 반부패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고, 상호간 존중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기열 이사장은 "윤리·인권경영 실천다짐 운동을 통해 공단 전 직원이 실천 의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윤

리·인권 실천 사회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대구 남구청, 재활용 협약으로 자원 선순환 앞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역 내 자원 선순환모델 구축을 위해 GS리테일 대구경북본부 및 마미아플리에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투병폐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투

병폐트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을 통해 구는 지역내에서 수거된 투병폐트병을 재처리 후 나오는 단섬유(솜)를 "마미아플리에"에 제공하여 다양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며, 관내 GS편의점과 제로웨이스트 이벤트를 추진하여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관내 GS편의점과 함께 환경정비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제로웨이스트 이벤트'가 오는 9월 6일부터 18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구 관내 GS편의점(16개소)에서 △장바구니나 텀블러를 사용하여 구매하고 △인증을 받은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업로드한 후, △게시사진을 근무자에게 확인시켜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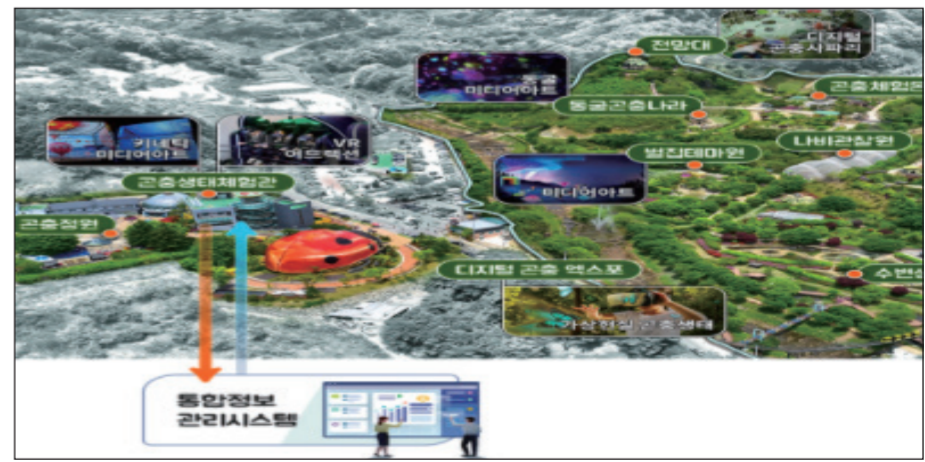
친환경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제로웨이스트 이벤트 상품은 다용도 파우치와 캠핑매트이다. 재활용 이벤트답게 제품 충전제로 폐투병폐트병 재처리 제품인 단섬유(솜)를 사용하였으며, 다용도 파우치는 충전제의 두께감을 활용 태블릿 등을 보관하기에 용이하게 제작하였다. 캠핑매트 또한 솜을 활용하고, 결면을 방수원단을 사용하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투병폐트병 분리배출이 속히 자리잡아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폐트병 재활용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민·관이 함께 더욱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예천군, 언택트 관광지 새 지평 열어



예천군이 '공존생태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언택트 관광지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2년까지 92억 원을 들여 예천공존생태원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 아트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핵심 콘텐츠는 △키넥트 미디어아트 △디지털 공룡사파리(AR기술) △모바일도슨트 △VR어드벤처 △동굴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VR △관람객 분석 기술 등이다.

이달 6일부터 기초 공사 착수에 들어가고 내년 12월까지 콘텐츠 구축과 시범운영 후 2023년부터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존과 교감하고 새로운 기술적 가치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창의적인 마케팅으로 예천군을 언택트 관광 선도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남해군-부산사하구, 농특산물 직거래



남해군은 지난달 31일 부산 사하구를 방문해 현지 주민들에게 직거래로 판매될 농특산물을 전달했다. 사하구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4200만원 상당의 남해군 특산품인 마늘과 멸치가 판매됐다. 남해군과 사하구는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하구에서는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남해 농특산물 사전 구입 예약을 받았으며, 이날 남해군

은 직거래 판매될 물량을 사하구에 직접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장충남 남해군수는 “교통·물류 중심의 도시이자 생태·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하구와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농특산물 비대면 직거래 행사를 준비해준 김태석 사하구청장 및 관계자 그리고 남해군 농특산물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사하구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울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위한 ‘스마트도시 시민참여단 메타버스 토크콘서트’ 개최

송철호 시장 ‘메타버스’에서 인사말 및 토론 참여

‘울산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참여단 토크콘서트’가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기반(플랫폼)을 이용,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관심을 모은다. 울산시는 9월 1일 오전 10시 송철호 시장, 시민참여단 등 64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송철호 시장을 비롯 시민참여단(54명)이 9개 분과(분야별 6명)로 구분하여 참여한다. 송 시장은 1부 행사에서 메타버스 기반 아바타로 나서 개회사를 하고 참여자들과 토론에 나선다. 송 시장은 개회사에서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등장만큼이나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월간업무계획보고회(8월 30일)를 실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메타버스 기반에서 취업을 향해 노력 중인 청년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시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관광·축제·산업 등에 가상융합기술을 적용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여 시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전문 회의 운영자(파실리티이터)와 하나의 그룹을 9개 분과로 구성하여 분야별 토론과 자유토론 등을 통해 스마트 도시 비전과 실행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9개 분과는 ▲근로·고용 ▲교통·물류 ▲보건·의료·복지 ▲시설물관리 ▲문화·관광·스포츠 ▲환경·에너지 수자원 ▲주거·교육 ▲행정 ▲방범·

방재 등이다. 울산시는 분야별로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울산 스마트 도시의 비전과 실행 방안 등을 도출하여 울산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의 스마트 도시 미래상을 그려낼 ‘울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2022년~2026년)’은 ‘울산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오는 12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김기현기자**



2021년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시민참여단 토크콘서트. 송철호 시장이 메타버스 아바타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부산 북구, 주민 제안에 개선과 실행으로 응답한다



부산 북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치 의제를 발굴하는 ‘소통정거장’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한 결과 42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북구 예방접종센터와 13개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의견 접수판을 설치하여 민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지역의 문제를 메도지에 적어 부착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접수된 의견은 △보안등과 그늘막

추가 설치 △침수구역 개선 △주차 시설 확충 △공원·쉼터·숲놀이터 추가 조성 △비대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확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자동차극장 설치 등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 조치가 가능한 △덕천천 환경정비 △골목길 보안등 설치 △현우 수거함 철거 등은 즉시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사업비가 필요한 △버스정류장 대기이자 설치 △침수구역 개선 등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치이제 실행사업으로 기후위기와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주민들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소통정거장을 기획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민관이 함께 더 나은 북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광영기자**

하동군, 양성평등주간 기념 문화행사 추진

고정관념 깨기 등 참신한 UCC·사진 공모전에 작품 96점 접수 ‘우수작 전시’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는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 모두가 행복한 하동’을 슬로건으로 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1일부터 군청 로비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 사진 공모전 우수작을 전시한다고 1일 밝혔다.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주제로 지난달 29일까지 공모한 UCC와 사진 공모전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UCC 7점과 사진 89점이 접수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UCC 2점과 사진 10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전국 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UCC 2점과 사진 22점이 출품됐을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 깨기 등 참신한 작품도 많아 우수작 선정에 고심이 많았다는 심사평이었다. 이번 선정된 우수작 UCC는 하동군의 공식행사에 상영되고, 하동군 공식 유튜브 채널 ‘알프스하동TV’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한 사진 우수작은 1일부터 군청 로비 전시를 시작으로 9월 한달 동안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등에 전시할 계획이다. 강영숙 회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고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성인지 감수성이 녹아있는 작품이 많아 기쁘다”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좋은 작품을 전시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에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영화관람 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희망군민 300명을 대상으로 관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거제시, 경남 최초 官⇄軍 영상정보 공유체계 구축



거제시가 경상남도 최초로 官⇄軍 영상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거제시는 8월 31일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지역책임부대인 거제대대와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거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용중인 1,600여대의 CCTV를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 한미연합훈련, 테러 발생 등 지역안보를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영훈기자**

또한 거제대대가 현장 확인 또는 상황 수습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대대 지휘통제실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변경용 거제시장은 “완벽한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타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거제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울주군청년센터, 청년구직자 위한 현직자 멘토링 특강 진행

창원시 전통시장도 전화 한 통으로 출입자 안심관리

울주군 청년센터 ‘청년지기’가 진로탐색 및 동기부여 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 취(업) 학당 현직자 멘토링 특강’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진로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웹툰 현직자가 및 웹소설 플랫폼 현직자 ▲울산항만공사 현직자 ▲한전KPS 고리사업소 현직자 ▲박물관 및 문화재단 현직자 ▲경찰 및 법원감정 현직자 등 일상적으로 만나기 힘든 다양한 직종의 현직자들을 초청해 직무 관련 멘토링과 취업성공 노하우, 현직자로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솔직한 토크를 나눌 예정이다. 강의는 9월 3일부터 10월까지 총 2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울산광역시

2021년 청년지기 성장지원 사업 취업역량강화캠페인

진취업학당

현직자 멘토링 특강

프로그램: 1. 진로탐색 2. 동기부여 3. 구직준비 4. 면접준비 5. 취업성공 노하우

모집대상: 1. 2021년 9월 1일~10월 31일 2.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구직준비 중인 청년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2. 면접 3. 합격자 발표

문의처: 010-5312-1100

청년센터에서 진행되며, 각 강의마다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참가자에게는 울주군 청년센터 꾸러미상품을 지급하며,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울주군 청년비도 확인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청년센터 ‘청년지기’의 홈페이지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청년센터 관계자는 “진로와 취업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특강이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현재 울주군 청년센터에서 다양한 진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명서시장 등 23개소에 대해 전화 한 통으로 출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안심콜 무료전화 서비스’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콜 무료전화 서비스를 서비스 이용 사업장에 번호를 부여하여 방문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해당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 방문일시 등의 기록이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이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4주 후 자동 삭제되어 개인정보 또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전화 통화로 발생하는 통신비는 창원시에서 부담한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관내 전 전통시장에 ‘안심콜 무료전화 서비스’ 설치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광영기자**

거창군, 2021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872필지

거창군은 오는 23일까지 2021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872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이며,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와 각 읍·

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두 기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



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병철기자**

정읍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박차

10월부터 혜택, 홈페이지·SNS 등 활용 지속 홍보 예정

정읍시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확산으로 석 달 앞당겨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



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

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 월부터 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정읍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9월 추석 전후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군산시민예술촌 '2021 스릴러 페스티벌' 개최



군산시는 군산시민예술촌이 지난 8월 28일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에서 입장객 50명의 참여 속에서 '2021 스릴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릴러 페스티벌'은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는 군산 여름 대표 프로그램으로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스릴러 공연, 특수 분장, 포토존 체험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 페스티벌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시민예술촌 공연장에서 스릴러 공연 위주로 축소 진행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댄스팀 달하, 블러드프로젝트, 검무 지무단, 그룹사운드 트리플제이, 연극퍼포먼스 극단업씨어터, 클래식전문예술단체 페

탈의 참여로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S뷰티스쿨의 특수 분장으로 출연진을 좀비와 귀신으로 만들어 으스스한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시민예술촌 야외에 설치된 공포체험 포토존은 페스티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 한달 간 운영된다.

박양기 시민예술촌장은 "군산시 대표 여름축제인 스릴러 페스티벌이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가 매우 쉽지만,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해 주신 출연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전라북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나부터 온실가스 감축 적극 실천



탄소중립 사회 전환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공감대 형성

이번에 제작된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는 가정·학교·기업 등 3개의 주제로 나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81개 실천수칙으로 구성됐다.

주제별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 순화, ▲흡수원 등 5대 분야로 실천 방법,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부 지원 제도, 시설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정보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향후 도민들이 쉽게 알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다"라며,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생활 속 실천에 많은 관심과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촌의 지역자산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돼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 간 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산물인 홍삼과 요즈음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곤충과 약용작물을 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1일 설명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추진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탄탄하고 건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진안군은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9월 중 사업 추진단과 액션그룹을 구성하고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특산물인 진안홍삼을 더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행정과 추진단 및 액션그룹 등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임실군, 레드서클 캠페인 진행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첫째 주)동안 '레드서클 캠페인'을 오는 7일까지 실시한다.

레드서클(Red Circle)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며 자기 혈관 숫자는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로 의미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레드서클 존(홍보부스)을 의료원·보건지소·진료소 총 30개소에 설치 운영한다.

방문 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 검사와 건강관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내 사업장인 일진제강, ㈜푸르밀을 방문하여 근로자 45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홍보로는 임실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레드서클 캠페인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바로 알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숲

한국의 자연을 가감 없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에서

물

영양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영양에서

빛

영양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영양에서

맛

영양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영양에서

심

영양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영양에서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비전길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강릉시, “코로나 팬데믹 속, 모든 청소년의 문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강릉 문화도시, 지역 교사 커뮤니티 ‘있다’와 함께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강릉시가 범정부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교육청, 강릉교육지원청, 강릉지역 교사커뮤니티 ‘있다’와 손잡고 ‘청소년 문화학교’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청소년 문화학교’는 제도권 공교육을 넘어서 10대 청소년기 특성에 맞춰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다양한 삶의 탐색을 돕기 위해 준비했으며, 특히 청소년 문화격차와 소외 현상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강릉 문화도시는 단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벗어나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미래 주역을 양성하는 데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을 인식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올해의 목표로 두고 있다.

본 사업을 위하여 강릉지역 교사커뮤니티 ‘있다’(대표교사 전영옥)는 지역 청소년 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문화자본 확충에 뜻을 모으는 초·중·고 지역 교사들이 결성한 소모임으로 청소년 문화에 대한 공론장을 우선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 문화를 주제로 교사들이 주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지난 7월 개최된 바 있으며, 이어서 학부모가 주도하는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오는 9월 2일(목) 저녁 7시, 청소년이 주도하는



회의가 9월 9일(목) 오후 5시 30분에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문화 발전을 주제로 문화도시 포럼이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문화 발전을 위한 공론장 외에 오는 9월 27일(월)부터는 교사-청소년이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학교 팀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팀프로젝트는 교사커뮤니티 ‘있다’와 함께하는 현업 교사와 중고등 학생기에 있는 청소년이 하나의 모둠(4~10인)을 이뤄 자율적으로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만들고 5주에 걸쳐 수행해 보는 활동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은 입시, 가정여건, 정보부족

등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문화예술활동을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

‘있다’에 참여 중인 전영옥 교사(옥천초 운산분교)는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문화적 혜택과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이들을 잘 알고 있는 일선의 선생님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청소년 문화학교’를 계기로 교사커뮤니티를 넘어 청소년, 학부모와 관계이웃 등 지역사회 전체가 연대하는 청소년 문화 거버넌스가 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도원/기자

태안군 영목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쾌거' 단양군, '공공언어 개선 제안 공모' 추진



‘태안군의 새로운 관문’ 영목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지난달 말 국가어항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일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신호가 커졌다고 밝혔다.

영목항은 고남면 고남리에 위치한

항구로 태안-보령 간 국도77호선 완전 개통을 앞두고 태안군의 새로운 관문으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며, 태풍 시 어선들의 대피공간 부족으로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오던 영목항이 세 번째로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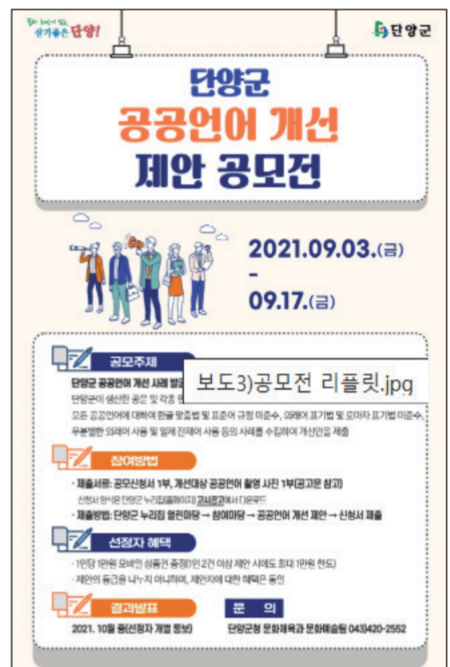
군은 올해 말 국도77호선 개통으로 대전항에서 영목항까지의 차량 소요

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돼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목항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축이자 서해안 대표 거점어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관광개발 전략과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교통 SOC △휴양관광 SOC △대규모 관광시설 및 연수원 △정주여건 개선 △관광진흥 전략 △기타 생활 인프라 등 6개 분야 44개 사업을 대응과제로 선정, 사업의 조기 구체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가세로 태안군은 “태안의 새로운 관문이 될 영목항의 이번 국가어항 지정은 태안군과 군민 모두가 절실함을 갖고 이뤄낸 노력의 결과”라며 “영목항의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마련함으로써 태안군이 서해안 최고의 관광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말 국도77호선 개통으로 대전항에서 영목항까지의 차량 소요



충북 단양군은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무분별한 외래어와 일제 잔재용어 등을 발굴해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한 ‘공공언어 개선 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1일 군은 공공언어 개선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종 공문 및 민원서식, 홍보문, 안내문 등 공공언어에 대해 군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

는 공공언어 개선 접수창구를 지난 달부터 단양군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개설된 해당 접수창구를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언어 개선 의견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공공언어 개선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제출 기한까지 접수된 개선안에 대해 ▲주민수해도 ▲발굴노력도 등을 심사해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군청 누리집의 열린마당 > 참여마당 > 공공언어 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공모신청서 1부, 개선대상 공공언어 촬영 사진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오는 10월 중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언어의 올바른 개선을 통해 보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과 우리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제안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며 “평소 어렵고 불편했던 공공언어를 개선할 수 있는 이번 제안 공모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문화도시 원주 릴레이 사진전 '기억의 기록'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2021년 문화도시 원주 아카이브 사업의 하나로 릴레이 사진전 ‘기억의 기록’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

원주에서 활동하는 3명의 사진작가와 6명의 시민작가가 기억하는 원주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촉각·청각·후각 3가지 콘셉트로 지역 스튜디오 3곳에서 릴레이로 진행된다.

매주 2회(수요일, 목요일) 운영되는 큐레이션 프로그램 ‘작가와 나누는 사진 이야기’를 통해 작가와 함께 소통하며 사진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3번의 전시를 모두 관람하면 ‘문화도시 랜덤팩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김나영 메인 작가는 “사진을 좋아하는 9명이 함께 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며, “사진 속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가 관람객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선군,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다름존중 챌린지” 실시



정선군은 나이·직급·성별에 관계 없이 서로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으로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정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군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름존중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성평등조직문화 확산 10대 실천과제 주요 내용은 서로 존중하는 언어 사용,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동료 배려, 동등한 기회·대우 하기, 상대방 공감 대화 나누기, 동료 사생활 존중, 성역할 고정관념 갖지 않기,

회식 3無(참여강조, 음주강요, 자리강요) 지키기,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 등이다.

또한, 관내 여러 기관,단체가 함께 성평등 조직문화 만들기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600여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은 물론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세종을 만듭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7일까지 2021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평등을 일상으로 한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세종을 만듭니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해 기념식 등 대면행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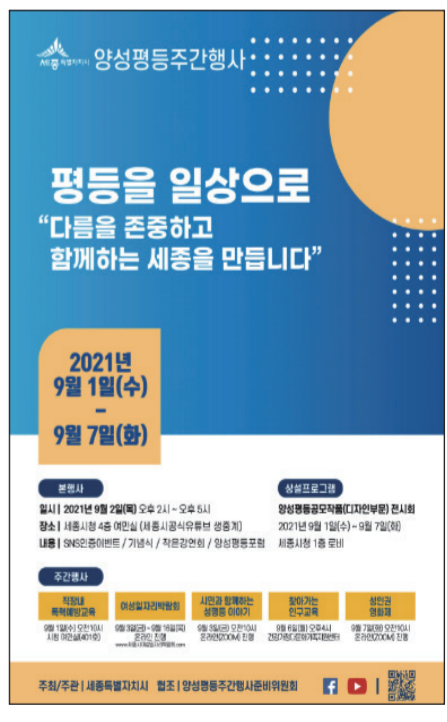
먼저, 9월 1일은 시청에서 ‘직장 내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튿날인 9월 2일은 본 행사인 기념식을 비롯해 작은 강연회, 양성평등 포럼을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다.

이날 기념식은 양성평등 유공 시민에 대한 표창 수여와 양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세대·계층별 생각을 들어보는 인터뷰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기념식에 이어 시민 3명이 ‘평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소규모 강연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양성평등 정책 포럼을 끝으로 본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행사는 오는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며, 9월 3일 오전 10시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성평등 이야기 ‘양성평등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진행된다.

9월 6일 오후 4시에는 찾아가는 인구교육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진행



최재은/기자



대전 서구,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운영

내동·갈매1동, 고독사 없는 따뜻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앞장서...

대전 서구 내동과 갈매1동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돌봄망 밖에 놓인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생명사랑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생명사랑 모니터링단’은 지난 7월 대전시 주관 ‘생명사랑 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우울감, 고독사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지역안전망을 강화한 마을단위 돌봄 활동 사업이다.

향후 모니터링단에서는 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및 방문상담 ▲우울

감(스크리닝) 간이검사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오해근 내동장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명사랑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생명존중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순영 갈매1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독거노인 가구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 내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보령머드팀, 한국여자바둑리그 포스트시즌 진출 성공



세계 여자랭킹 1위인 최정 선수를 앞세워 지난해 한국여자바둑리그에서 우승을 거머쥔 '보령머드팀(감독 문도원)'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8월 26일 정규리그 마지막 14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아쉽게 리그 3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였지만 포스트시즌에서는 2021 한국여자바둑리그 우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규리그 중 지난 13라운드는 보령머드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섬섬여수팀과 보령머드팀이 한판씩 주고받은 1대1 상황에서 보령머드 4지명 박소을 선수가 섬섬여수 주장 김해민 선수를 꺾고 복심의 승리를 거두 2대1로 팀 승리를 결정지으며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다.

특히, 보령머드팀의 에이스이자 보령의 딸, 최정 선수는 정규리그 중 단 한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하며 명실상부한 에이스로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오고 있다.

보령머드팀은 오는 9월 9일 오후 5시에 4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서울 부광약품과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문도원 감독은 "포스트시즌에서 최종 우승을 거둘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동일 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령머드팀이 한국여자바둑리그 우승을 거두며 시민에 많은 기쁨을 주었다"며 "올해도 선수들이 포스트시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도원 감독이 이끄는 보령머드팀은 최정 9단, 강다정 3단, 김경은 2단, 박소을 2단 등 4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다.

김원호/기자

광주중앙고,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최우수상 수상



광주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연극 축제인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중앙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충남 공주시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광역단위 지역예선을 거쳐 16개 시·도 대표로 선발된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학생들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광주 중앙고등학교는 1980년대 광주이야기를 담은 작품 '파발교연가'로 제주 신성 여자고등학교(대상/국무총리상)에 이어 단체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중앙고는 이외에도 개인부문에서 최우수연기상(양하람), 우수연

기상(이현영), 우수지도강사상(안승주)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처음 출전하면서 관내 경화여고, 광주고, 경화EB고에 이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광주의 명문 연극반의 계보를 잇게 됐다.

한편, 광주지역 고등학교는 '전국 청소년연극제'에서 대상 3회(2007년/경화여고, 2009년/광주고, 2010년/경화이비고), 최우수상 4회(2001년/경화여고, 2005년/경화여고, 2020년/광주고, 2021년/광주중앙고), 우수상 2회(2003년/경화여고, 2011년/광주고)를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연극 강자로 우뚝 섰다.

박강호/기자

증평군의회 연봉희 의장, 여권통문의 날 맞아 기념 챌린지 참가

증평군의회 연봉희 의장은 양성평등주간(9월 1일 ~ 9월 7일)과 제2회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을 맞아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여권통문의 날 챌린지를 진행했다.

여권통문(女權通文,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始通文)은 1898년에 발표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이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이소사(李召史), 김소사(金召史)의 이름으로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始通文)'을 발표했다.

이 통문에는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정치참여권, 경제 활동 참여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기념해 지난 2019년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고, 2020년에 첫 기념식을 치렀다.

연봉희 의장은 "우리군은 2016년에 도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현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성평등을 막는 사회적 장벽을 철폐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보령시, 8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정



보령시는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직원 5명을 8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건축허가과 천혜진 주무관은 매월 기초수급자 3400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134가구와 농어촌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15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으며, 친절한 민원 응대로 복지대상자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산림공원과 송도원 주무관은 신축동 일원에 무궁화 품종 보존을 위한 양묘장 2820㎡를 조성하고 무궁화 우수분화 27점을 출품해 '제2회 충남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으며, 성수기 성주산자연휴양림과 무궁화수목원 등 산림휴양시설 34개소에 대한 철저한 운영 및 관리로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섰다.

수도과 오성연 주무관은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GIS DB구축

충주시, '적극행정 우수' 감사원장 표창 수상

충주시가 학생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다.

시는 지난 2019년 충주 도심에서 대소원면에 위치한 한국교통대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 적용되던 복합할증료(60%) 면제를 위해 시와 한국교통대, 택시업계와 '택시요금 복합할증 제외'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는 충주시 ~ 교통대 구간 복합할증 제외가 적용돼 교통대 학생의 택시 이용비 1,500원~2,700원에 이르는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어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숙원 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5월 20일부터는 시내 중·고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교통편의 시책을 발굴·시행한 것이 감사원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신정순 교통정책과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 시책을 적극 확대·발굴해 시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최만식/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 시민참여 대전교육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8월 31일 대전교육갤러리(시교육청 1층)에서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2021 시민 참여 대전교육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교육가족과 일반시민 누구나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한 관심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참여함으로써, 교육현장을 넘어 시민사회까지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다는 평가이다.

이날 청렴콘텐츠는 ▲청렴노래 ▲청렴표어캘리그래피 ▲청렴수기 ▲청렴웹툰 ▲청렴포스터·카드뉴스 5개 분야에 총 224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 중 학생부 31편, 일반부 21편 총 52편(최우수상 8편, 우수상 19편, 장려상 25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수상자 참석 범위를 한정하여 대전교육갤러리에서 살뜰히 대전교육감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특히, 대전교육 갤러리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청렴표어캘리그래피 작품 30여점이 전시되고 있어, 시상식 장소로 뜻깊었다.

청렴표어캘리그래피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인 권연란씨는 "일상생활에서 청렴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였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청렴 시민이 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우수작으로 선정된 청렴콘텐츠들은 우리 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청렴콘텐츠 공모전에 모든 시민과 교육가족들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포천교육지원청, 제26대 정영숙 교육장 취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1일 포천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제26대 정영숙 교육장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축소된 규모로 온라인 방송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임 정영숙 교육장은 청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3년 안양 석수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부천·고양교육지원청,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장학사를 거쳐 풍동초등학교 교감, 신일초등학교 교장, 안산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부천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지닌 '학생중심·현장중심'의 경기교육 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교육장은 취임사에서 '학생과 현장 중심에 둔 가치, 혁신, 미래, 협력'을 강조하며, "교육공동체 모두

가 평화롭고 행복한 포천교육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학교자치 실현,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환경 조성,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확대 등 포천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 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포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동희/기자

최응기 옥천부군수,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유치 응원 챌린지 동참



최응기 옥천군 부군수는 1일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청권 유치를 위한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대회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된 충청권(충북·대전·세종·충남) 4개 시도에서 대회에 대한 시민·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시작되었다.

최응기 부군수는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충청권 유치를 5만여 옥천군민과 충청권 청년들의 열정과 열원으로 반드시 충청권에서 대회 개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